

서울문화재단 '2024 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공모 선정 프로그램

| 아모르시詩티 |

아모즈<sup>詩</sup>시티  
아카이빙복

인문예술놀이터 다:시

사랑에 물음표를 달고 시로 답하는 시간



## 아모르시詩티 UNIVERSE

먼 데 있는  
오히려 낯선  
사랑의 돌부리를  
찾고 있다고 들었어요.

무화과를 기다리는 여름은  
가을에 다다르고

하얗게 유예된 종지와  
사랑에 대한 수업은  
신체 속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까만 글씨가 아니라  
우리 사이의 어떤 양으로요.

그렇게 달빛에 이슬이 맺히듯  
시간詩間은 서서히 흘러갔지요.

우리는 언제까지  
떨어진 사랑의 꿈무늬를 따라  
기울어질 수 있을까요?

이제,  
2024년 팔구시월을  
액자에 걸어 놓으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지켜볼 건데?  
라고 물으신다면

영원히,  
라고 대답할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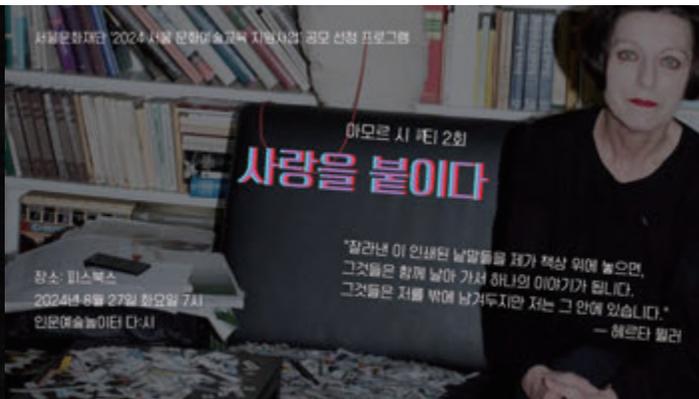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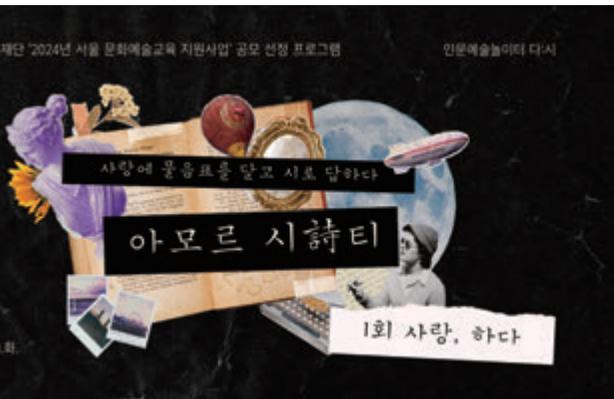
2024년 11월,  
아모르시詩터를 걸으며  
담요로부터.

 녹색 글씨의 말들은 아모르시詩터 2기 시인님들의 시집 제목으로부터 빌려왔습니다.

01

02

03



신혜연

## 종이양 유니버스



### 부연설명

휴대폰이 잘게 몸을 떼다  
'연'은 전화를 받는다  
컴퓨터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질문을 던진다  
의자를 빙글빙글 돌리다가  
다리를 침대 위로 얹는다  
허리는 점점 내려간다  
목소리의 톤이 점점 높아진다  
목소리의 크기도 점점 커진다  
문 닫은 방 안 가득 웃음소리 가득하다  
'연'의 입이 속사포처럼 마구 말을 내뱉는다  
'연'은 침대에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방 안을 돌아다닌다  
  
'부'가 방문을 연다  
'연'은 통화 중이라며 문을 닫는다  
  
방 안은 풍과 희열로 고루 섞인다

연의 도파민이 캡처된다  
순간들이 한데 모여  
미현상 필름으로 남아 있다  
조만간 밝은 빛으로  
터트려질 것이다

## 램부탄

들판에서 뛰노는  
아기 양떼  
초로코 초로타

새하얀 빛줄기  
온 세상을 제패한다  
해 밝은 얼굴로

흙탕물 툰  
곱슬털 한 뭉텅이  
웅덩이로 커져 나가고

아무것도 모르는 양  
마냥 신이 난다  
아직은 더 울 수 있는 발재간이 남았기에

메마른 털



옴짝달싹 머리빚은  
양의 눈을 덮는다

누가 종이양을 깎아 줄 것인가?

씩둑씩둑  
온정을 잘라내어  
광활한 잔디 위 미끄덩대련다

우리는 지구에서 태어나 영리에 취해 종이에 시 한 편 쓰는 것을 유예했다.

무더운 장마철, 출근길에 우연히 마주한 지령이를 보고는 시를 쓰고 싶었다. 처음이었다. 글이 아니라 시를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것은. 덕분에 나는 여차저차 아모르시詩티에 입성했다. 처음에는 서로의 시를 읽고 감상을 나누는 것이 어색했다. 누군가와 일상에서 시로 대화를 한 적이 있었나? 기억이 나질 않는다. 시간이 지날수록 생소함은 특별함으로 바뀌어 갔다. 다양한 사랑의 형태를, 사랑을 대하는 태도를 만나볼 수 있어서 좋았다. 그 모든 사랑이 애뜻해 보였다.

저기 먼 곳에서 앙상한 나뭇가지 다리가 걸어오고 있다. 11월. 가을은 울긋불긋 다채로운 사랑의 결실을 보여준다.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은행도 발에 밟히지 않게 조심조심 피해 다녀야 하지만 계절의 냄새를 담고 있기에 가을에 꼭 필요한 존재이다. 어쩌면 가을은 사랑의 면모를 지니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싱그러운 여름에서 붉게 물든 가을로 이어진 것처럼 나는 사랑과 자아의 교차로 뚝지만 내 모습 그대로 영글어가고 있다.

아직도 시의 영역은 미지의 세계이지만, 단내가 푹푹 떨어지는 남  
대문씨앗호떡을 한 입 베어 물고 담요 속으로 쏘옥 들어가 시집 한  
편을 읽어야겠다.

♡모두 감사합니다♡

나무

## 요람과 무덤



발명하다

변진다.

점점점 나는 너에게로 너는 나에게로  
노을이 번지듯 그렇게 번져간다.  
언제 사라질지도 모를 이 번짐

감염된다.

나는 감염되었다. 너에게  
너는 감염되었다. 나에게  
세상에 너와 나만 격리된 것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감염된  
감염자

발땡하다.

너는 나를 발땡시킨다.

어디에서 온 나일까?

나는 너를 만나 비로소 또 다른 나를 발땡해 본다.

이것은 나인 걸까? 너인 걸까?

\* 발땡하다 : 발명하다의 강원도 방언

## 투명해지는 세계

어린 나는 목련꽃 열매

우리는 어느덧 함께 번진다

함께 희미해진다

안녕, 괜찮아요.

나는 검은 죽음

일어나고 싶지 않다

너는 나비 한 마리 내게로 날아온다.

내게로 한없이 상냥하게 다가와 삶이 된다

간질간질 첫사랑이 번져 다시 삶을 환히 밝힌다

반짝 고마워요.

또 한 번— 사랑이지

영원히 이곳에서



평범한 혹은 지루한 나의 일상으로 시가 스미는 시간이었다. 시라는 것은 가까이 가고 싶지만 심리적 거리감으로 인해 다가가기 힘들다는 생각을 하곤 했는데 아모르시티를 통해 시를 내 일상으로 데려올 수 있었다. 서로의 말이 오가고 생각을 나누며 시가 더 풍부해지고 확장되어 간다는 생각이 든다. 종이에 글자로 새겨진 시들에 입김을 불어 넣고 서로의 공감을 먹고 자란 시들이 더 명확해지고 입체적으로 탈바꿈되는 현상을 직접 목격했다.

가장 좋았던 점은 잘 쓰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분위기였다. 아모르시티 안에는 그런 받아들여짐이라는 특유의 분위기가 존재한다. 그냥 각자의 느낌이나 감정에 솔직해도 된다는 인정과 받아들여짐이 편안한 마음으로 매시간을 지나오게 만들어준 것 같다.

매번 시작이 어려운 나에게 어렵지 않게 시에 다가서게 해주신 아모르시티에 감사하다. 감사한 공간, 감사한 사람들, 감사한 시간, 감사한 아모르시티.

한여름 첫 만남에 반가운 안녕, 가을의 끄트머리에 아쉬운 안녕.

메이

우리는 언제까지



완두콩

무릎이 다친 나는  
짓무르고 희미해진다

푸른 어깨의 사랑이 상냥하게  
양팔을 반짝일 때

우리는 한없이 동그래지고  
곡선을 맞춰 웃었다

자꾸만 생애의 것들이  
쓰고 비릿한가

우리는 안쓰러워  
영원히 함께 다가간다

열렬히 사랑하다 오렴

아직 이곳에서  
보고 싶은 소리

## 이름하다

오래도록 기억하기  
유일무이한 것을 떠올리기  
고유한 것으로 만들기  
달의 뒷면을 발견하기  
이름 그 자체로 사랑이 되기



시를 곁에 두는 삶을 늘 꿈꿨지만 시는 가까운 듯 먼 듯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시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제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하는 것이었지만요.

비전공자로서의 자격지심과 ‘잘 써야 한다’는 압박, 그리고 현생이 저의 펜을 놓게 만들었는데 회사에서 탄압하다 발견한(ㅋㅋㅋ) 아마르시티 모집 공고를 보고 ‘사랑에 대해 10주 동안 시를 쓴다’는 것에 이끌려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라면 시를 잘 쓸 필요도 없고, 내가 좋아하는 사랑에 대해 실컷 이야기하고 글 쓸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면서요.

이전에 많은 시 쓰기 취미 모임을 다녀왔던 경험으로, 40대 이상의 분들이 많을 것이란 예상과 달리 또래로 보이는(실제 나이는 모르지만...) 분들이 많아서 놀라웠던 첫인상이 기억납니다.

사랑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할 것을 기대하고 왔지만 한편으로는 10주라는 긴 시간 동안 이야기할 것이 있을까? 했는데 다각도의 감각과 측면에서 사랑을 바라보게 해준 강의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어서 화요일 저녁은 늘 마음의 창문을 열고 방 공기를 환기시키는 느낌이

었어요.

또 모임 리더분들께서 언제나 따뜻하게 맞이하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그 대화들 속에서 치유되는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직장인인지라, 어쩌면 ‘일’의 영역에서 접근할 수도 있었을 텐데 진심을 다해주시는 게 느껴져서 대단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어요. 낮을 가리는 성격 탓에 많이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언제나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꼭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땀을 뻘뻘 흘리며 서촌의 골목을 걸었던 8월을 지나, 손이 시려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는 10월이 어느새 되었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너무나 아쉽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울 만큼 좋은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한나

유예



## 다정함의 이빨

깨진 첫사랑 주머니에 누워있는  
고요하고 고요한 날들

마리, 마리아  
“사랑이 며칠째 죽지도 않잖아,”

허우적거리며 더 작은 속도로 목소리가 없어지고,  
별거벗은 정적에게  
한없이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  
양팔을 주워 함께 희미해지고 싶었다

춤추는 팔을 뚫고 조용히 돌아와서는  
시끄럽게 너의 이마를 벌리고 어깨 사이로 무릎이 반짝일 때  
멀어져 간 사랑의 얼굴

아 아 —  
재앙이다

투명해지는 네 머리  
잡아주고 싶은 손의 감촉

상처 난 발이 영원히 웃었다

## 이쪽의 결말

너는 내 평행우주 속 또 다른 가능성  
내가 하지 않은 선택이 모두 너였고, 비켜 간 불행이 전부  
거기 있었다

우린 너무 달라  
낮게 읊조린 목소리, 너머로 신음했다  
거대한 연결감이 짓이겨졌다

네 번의 바다와 두 개의 밤  
지독한 여름  
유충들은 소리 없이 질식사했고 태어나지 못한 모기는 시체  
가 되어 가로등 밑에 쌓여, 간다

떨어진 사이로 짓어드는 바람  
사랑이 이렇게나 매스껍다니  
뿌연 담배 연기를 해치며 방황했다  
목을 졸라 버리고 싶다가도 언젠가의 너에게 숨을 불어넣고



싫어 엉엉 울던 날, 품으로 파고드는 모기의 주둥이

갈 곳이 없다

나는 돌고, 돌아

졌다

가까이 붙어 먼 곳으로

공회전할 뿐

한평생 시 쓰기가 참 어려웠다. 어딘가 내놓을 수 없는 글들이 있었고 존재한지도 모른 채 사라졌다. 혼자 추억거리다 맏지 못했다. 내게 시는 쓰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이었고 읽는 것도 점점 흐려져 갔다. 삶 속에서 시는 유예되었다. 당연한 일이었다.

팔월 끝, 서촌에서 시인들이 태어났다. 유예된 나도 함께했다. 다른 시인들은 혼자 써오던 나를 지구 밖으로 데려가기도 했고, 관심 있게 본 적 없는 것들을 궁금하게 만들기도 했다.

여러 밤이 모여 가을이 무르익었고 몇 편의 시가 존재하게 되었다. 더 이상 나는 시를 유예한 게 아니었다. 적어도 유예한 시인이었다. 태어나 처음 시인의 말을 써 보았다. 기쁘고 감사하다. 시인들의 탄생과 성장을 준비해 준 선생님들과 함께 해준 시인들 모두의 덕분이다.

시인의 말을 덧붙이며 이만 줄인다.

시인의 말

어떤 사랑의 형태를 빚어야 내가 될 수 있을까

침잠하는 밤들은 새벽 내내 웅크리다 새의 울음 속에서 피어난다

그 끝에 또 다른 침묵이 있을지라도

저편의 불행마저 사랑이어서 불행했다

이쪽의 사랑이 불행해서

사랑했다

너의 불행이 나의 불행이라

살아간다

그 흔적을 엮어 이 자리에 서 있는 나

이 모든 귀적에게 바칩니다

2024년 10월

임한나

도토리묵

## 사랑 먼데



## 로봇, 그 다음은

아 하기 싫어, 내일 할래  
안 해, 귀찮아  
뭔데. 인생 망하고 싶니?

다들 말한다. 오버 핑킹.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 저스트 두 잇.  
5초 안에 실행해 그냥 줘!

그렇게 로봇이 되었다. 로봇이 됐으니  
꾸준히 매일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다보면  
내가 원하는 '나'가 될 거야. 확신해. 99%.

근데 그 다음은 뭔데?  
여유롭고 사회구성원으로 어느 정도 괜찮게 자리 잡았잖아  
그 다음은 뭔데?  
노후 대비?

웁. 재미없어.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건가.  
원동력 찾고 이루기 위해 실행하고 목표 사라져 다시 리셋.  
난 로봇이 되기로 했으니까 생각 그만할래.  
일단 원하는 '나'가 되면 개한테 다시 물어볼게.  
보류.

## 좋아하는 냄새

오늘 저녁, 이곳에는 바람이 분다.  
바람에 실려 온 구두약 냄새가 기억나서  
무심코 어린 시절 좁은 아파트에서 떠들던  
즐거운 때가 생각난다.

엄마는 주유소 기름 냄새를 좋아한다.  
나는 머리 아픈데.  
구두약 냄새도 엄마한테 그럴까?

아빠랑 동생은 무슨 냄새를 좋아할까?

그리고 보니 어렸을 때 말곤  
구두약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다.  
집에 구두약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면, 아직도 그 냄새가 좋을까  
궁금하다.



구청에서 하는 글쓰기 수업 선생님이 한번 신청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셨다. 주제는 사랑에 대한 시를 쓰는 것이었다. 평소 사랑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고 잘 모르는 상태였지만 그래도 추천해 주셨는데 신청은 해보아야지 않을까 해서 시작하게 되었다. 사랑 하면 성애적 사랑만 떠올렸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성애적 사랑만이 아닌 여러 사랑의 종류가 있고 그것이 내 안에 있고 지금 나는 사랑받고 사랑을 나름대로 표현하려고 하고 있구나를 깨달았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같이 의견을 나누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어색했지만 어딘가 마음이 편안한 부분도 있었다. 모르는 사람들이기에 더 꾸밈없이 말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런 기회와 장을 만들어준 아모르시티에게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교류를 경험했으면 좋겠고 그로 인해 마음이 풍요롭게 되길 바란다.

강세진

무화과를  
기다리는 여름  
-신체 수첩



귀

참방하다

문 위로 가만히 손대며 이윽고 어떠한 리듬으로  
조금의 속도감으로 자박이며 발장구를 치는  
물결의 소란함을 보았지

어느 절이었던가?

온갖 동물들이 동물 탈을 쓴 것처럼  
가죽에 매여 떠나지 못하는 것처럼  
슬프게 슬프고 슬프게 바라만 보는  
그런 날들도 있었는데

까르락까르락하다

가르륵 가르락 가르락 가르릉 가르기

가르로 가르록 가르룩 가르락 가르랏  
숨이 꺼지고 올라서길 반복하는  
다시 한 번 큰 숨 뒤 낮은 한숨들의  
기포가 방울져 연이어 터져 오르면

있잖아, 못할 말이 너무 많아

하고 싶어도 하고 싶지 않아도  
아니어도 그렇다고 해도  
모르는 말들을 아주 큰 구멍이  
그래 거기 그 구멍이 속에 처박아두고

사랑이라 이름을 붙였지

## 몸과 몸

죽으면 다시 태어날까  
죽으면 벌을 받을까  
죽으면

고민했다  
30초의 추락과 어쩌면 30년의 인생 중  
무엇이 더 나은지 무엇을 택할 수 있는지

시를 썼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이유를  
내가 나를 죽이면 안 되는 이유를

소리를 냈다  
엄마를 울리려고 태어난 게 아냐  
엄마를 상처주려고 태어난 게 아냐

그럼 왜 태어났을까



헤아려보았다

기억하고픈 것 곁에 있고픈 것 부르고픈 것  
울고플 때 웃고플 때 더없이 죽고플 때  
내가 알고 있는 것들과 모르는 것들 속에서

적어보았다

안양의 만화방을 잠실의 서점 아주 작은 시집 서가를  
광명 늪지와 개구리들의 울음을  
오래된 교회당의 천장과 여름 장맛비 소리를

너와 너와 너를 너와 너와 나를

저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26살까지 아주 오랫동안 시를 썼어요.  
시를 배우고, 공부하고, 전공도 시 창작이었으니, 사회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건 시를 읽는 것과 쓰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인이 되진 못했어요. 시를 좋아하는 것과 별개로  
시를 잘 쓰진 못했습니다. 26살 여름, 저는 더 이상 시를 안 쓰겠  
다고 다짐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시를 못 쓰는 저를 더 이상 견  
디지 않겠다 다짐한 것이지요. 돌아보니 시를 떠나 시를 읽지도 쓰  
지도 않고 7년이 지났어요.

물론 그 시절들에도, 저에겐 오래전 마주했던 서점과 그 속에  
작은 시집 서가가 이곳이 어딘지를, 도시의 이름을 알려주는 이정  
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를 생각하면, 그리움보다 죄책감이  
더 깊어졌어요. 시를 쓰지 않는 시간에 저를 향한 혐오가 짙어졌  
죠.

그런 상황에서 모르시티를 찾아갔어요. 사랑하고 그리워했던

그 시절 시를 생각하면서요. 참여를 잘 하지는 않았어요. 2주를 빼 먹고, 참여한 첫 시간에는 몸쓸 말이지만, 시를 쓰는 게 정말 싫었습니다. 대충 끄적이다 오자, 나를 빼두고 나를 지우고, 멀리 떨어져서 내가 상처받지 않는 것을 쓰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차가 계속되면서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이윽고 시를 쓰다 울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사랑했던 게 무엇이었는지 알게 된 것 같아요. 오래전 시를 썼던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는데, 다른 게 있다면 같이 하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깊어졌습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금 찾아서였을까요?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시간에 말하지 않고, 같은 조원분들의 사진을 한 장씩 챙겼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이제 처음과 같이 오롯한 슬픔과 막막함 속에 홀로 있지만, 그래도 외롭지는 않은 것 같다는 기분이 듭니다.

김수진  
Easter

오히려 낯선



## 장춘자와 김옥련

엄마의 엄마, 장춘자  
아빠의 엄마, 김옥련  
나에게는 둘 다 할머니입니다.

춘자는 주미를 기억하겠지요.  
그러니까 엄마를 닮은 언니에게 주미라고 부르는 것이겠지요.  
춘자는 혜진을 기억하겠지요.  
그러니 나에게 언니의 이름을 붙여 부르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요양원에 계신 지금은 왜 수진이를 찾으시는 걸까요.

옥련은 서서히 치매에 잠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とみえ부터 옥련이 되기까지, 조센징이라고 놀림을 받았을  
때, 그리고 부유했던 유년기.  
한편, 손주의 미래를 걱정하는 면모도 남아 있습니다.

춘자: 「핵교 어디 다니냐?」

수진: 「대학원.」

둘  
-하루하다-

춘자: 「학원?」

수진: 「석사 졸업하고 석사 한 번 더 다니고 있어.」

옥련: 「할머니는 네가 손주여서 너무 행복해.」

수진: 「나도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여서 좋아.」

한 명에게는 싹수없고 통명스럽게, 다른 한 명에게는 통명  
스럽지만 상냥하게.

나는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이라서 ‘할머니가 내 딸로 태어난  
다면?’ 같은 상상은 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회귀물이 아니니, 당신들의 여생에 내가 있어서 다  
행이었기를 바라봅니다.

34,880보를 걷고

하루 종일 빙글빙글 돌아다닙니다.

88개의 건반을 가진 피아노 위를 자유로이 거닐고

오선을 넘나들며 노래하고 춤을 춥니다.

연주하고

작 · 편곡하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닿아서 이를 때까지

사소함을 곁에 두고

소요<sup>1</sup>하고 유보<sup>2</sup>하여 다다르겠습니다.

1. 소요하다: 자유롭게 이리저리 슬슬 거닐며 돌아다니다.

2. 유보하다: 휴식을 취하거나 건강을 위해서 천천히 걷다.

사랑.

무성애자인 나에게는 무게감이 느껴지는 낯선 단어이다. 어찌 다뤄야 좋을지 모르겠는 단어이기도 하다.

나의 사랑은 가족, 친구, 애인 중 누구에게 닿거나 할까. 사랑의 가장자리만 맴도는 게 마음이 편했다.

시.

기악곡과 성악곡 모두 쓰는 작곡가지만, 한동안 가곡을 썼기에 시를 잘 다뤄보고 싶었다. 그렇게 ‘아모르시詩티’에 참여하게 되었다. 표면적인 이유일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이렇게 생각했다.

나.

하지만, 시를 쓰면서 무엇보다 많이 생각하게 된 것은 자신이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미워하는지,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내 일상의 중심은 무엇인지 등 나는 누구인지 계속 생각하게 되었다. 내 인생에도 사랑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을 새삼스레 다시 깨달았다고 해야 할까.

나 자신, 나를 키워주신 아빠 쪽 할머니 김옥련과 10월 23일 돌아가신 엄마 쪽 할머니 장춘자, 내가 아끼는 친구 찬영, 친구와 동명이인인 나 좋아하 아이돌 RIIZE의 앤튼(찬영).

공부하기, 작곡하기, 피아노 연주하기, 산책하기, 그림 그리기.

나는 생각보다 좋아하는 게 많은 사람이었다.

‘창작이라는 건 내가 알고 있던 나를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하며 글을 마친다.

24. 11. 05. 김수진 Easter

김나운

언제까지  
지켜볼건데?



## 선인장 냄새

오늘 저녁, 이곳에는 바람이 분다  
바람에 실려 온 선인장 냄새가 나서

무심코 가슴팍을 내려다본다

따끔따끔할 줄 알았더니  
따뜻따뜻하다

가슴에 새겨진  
오아시스

오마이갓

내가 또 뭘 쓰고 있는 거야

콕콕 찢린  
가슴팍을 손으로 문지르자

실팔찌에 베어버린 선인장 냄새가 올라온다

아차차

아차차

## 화로

커피를 많이 마셨더니 입이 짹짹해서

양치를 하러 화장실에 들어왔다

칫솔에 치약을 짜다

면도기가 눈에 들어왔다

칫솔 대신 면도기로 혀를 닦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에 화들짝 놀랐다

그렇지만 이미 들어찬 생각은 멈출 수 없었고

내 상상 속 헛바닥에선

이미 갈라진 생채기 사이로 피가 철철 흘렀다

화로가 두 개인 거야

하나는 꺼져가는 불씨에

새로 장작 넣으며 키우고 있는 화로

다른 하나는 알아서 꺼지길 기다리는

아직 태울 게 한참이나 남은 화로

네 말대로 다 타버리고 나면  
그땐 이 불이 꺼질까?

억지로 물을 부어 꺼버릴까  
다 타버릴 때까지 불길 속을 미련하게 견뎌낼까?  
어찌고 싶어?

베란다에 빨래를 널어놨다  
잠깐 잠이 든 사이에 소나기가 내렸다  
요즘 날씨가 완전 동남아 같아  
방금까지 정말 맑았잖아  
짙한 햇빛 아래서 바삭 말렸는데  
다시 폭삭 젖어버렸다  
내 상태 같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억지로 가져다가 말렸는데  
결국엔 다시 또 축축해  
손만 대도 물이 철철 흘러

다시 세탁기에 돌리면 되겠지?  
비 그치고 날 좋은 때 다시 널어놓으면  
또 바짝 마를 거야

확실해?

뭘 있어 보이게 포장하려고 그래  
넌 그냥 두 남자를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둘 다 놓기 싫은 거지 지금  
아주 이기적이고 못된



사랑의 소용돌이 휩싸여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던 어느 날, 친한 언니의 추천으로 우연히 시작한 사랑의 시 쓰기. 끝나지 않을 것 같던 10주가 너무나 빨리 지났습니다. 여전히 태풍 속에 있지만, 때로는 유유히 때로는 휘청이며 사랑을 이야기했어요. 내 안에 가득 차다 못해 버거워 모두 다 내려놓고만 싶던 감정들을 종이 위의 기록으로 조금이나마 붙잡을 수 있었어요. 기교를 부리지 않은 솔직한 내 언어가 시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된 시간입니다. 좋은 시간 마련하기 위해 애써주신 호떡 시인님, 담요 시인님 정말 감사드려요. 진심 담아 만들어주신 시간을 온전히 느끼고 누렸습니다. 각자마다의 개성과 색깔이 얼마나 큰 매력인지 다시 한번 알게 해준 미지, 과자, 종이, 유예 시인님!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 정말 기쁘고 행복했어요! 우열을 가릴 수 없이 여러분 모두의 시는 사랑스럽고 애뜻합니다. 감사해요. 부디 함께한 모든 분의 마음에 사랑이 가득 차기를!

노을

월로(月露)



## 사랑의 다음 날

아직  
나는 궁금해  
쓰고 싶은 어린 조약돌

“사랑”, 하고 말하는 순간부터 희미해진다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  
그냥 숲으로 간다  
이곳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상냥하게 반짝일 때 안녕? 다정한 인사

한없이 다가간다  
브레이크 없어지고, 투명해지는 내가  
괜찮아요, 아직?

## 야반화(夜半花)

함박눈 쌓이던 밤  
파리하게 질린 얼굴로 찾아왔다.  
어슴푸레한 달빛에 비친  
나를 내려다보며  
그렇게 웃을 때가 참 좋아,  
나지막히 속삭이던 목소리

아지랑이처럼  
너의 말과 나의 말 사이  
이리로 저리로  
멀리뛰기 하듯  
넘나들었다.

감각하지 못한 거리만큼  
두 개의 섬이 만들어지고,  
또 하염없이 멀어졌다.

다시 코끝에 겨울  
더 이상 알지 못한다.  
모르겠음의 늪에 빠져,  
가장 낮은 곳에서  
더듬거린다.

고개를 들면  
나른한 초승달  
달이 차고 또 지는 동안  
계속해서 더듬더듬  
희미하게 터덜터덜



사랑이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뱉어보고, 곰곰이 씹어보며 되뇌던 날들이었습니다. 제게는 이미 멀어진 단어라고 생각해서 마음 뒤편 저 먼 구석에 치워버렸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글을 써보고 싶다는 소망은 있었지만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핑계 아닌 핑계로 거리를 두었습니다. 매주 정해진 주제를 따라가며 말들과 단어를 골라보고 시어로 배치하는 시간들이 어렵기도 했지만 시집으로 엮으니 한없이 뿌듯한 마음입니다.

아모르시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와는 별개라고 생각한 사랑도 시도 짚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행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오늘도안녕

다다르다



## 꿈의 뒷면

휘청거리는 등을 마주하고  
숨을 고르며 균형을 잡아

흔들릴지언정 쓰러지진 말자고  
수평수를 채우듯 물을 마셨지

꿈의 뒷면을 보며 사는  
매일이 꿈처럼 아득하다

비밀을 고백하던 날  
함께 묻었던 타임캡슐을  
같이 열어볼 그 날이 올까?

재잘대던 길을 혼자  
걸고 또 걸으면

바람으로 와닿는

꿈결 속 그 날의 내음

눌러 쓴 마음은  
마무리를 맺지 못한 채

주소 없는 안부도  
다다를 길이 없구나

꿈에 들면  
네가 함께 걸어주는 길

거기엔 벽도 없고  
넘어져도 쓰러지지 않는 세계

그래, 그렇다면  
꿈의 뒷면이라도 좋아  
꿈에서라면

## 너의 맛

ㄱ자 부엌은 비좁고 복잡해서 돌아서면 가스레인지와 개수  
대가 있었다

좀처럼 요리에 익숙해지지 않는 건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여기까지라서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말했다

당근에 붙은 흙을 털다 실수로 손을 놓쳤을 때,  
그때 널 잃어버렸나 보다

당근을 맨손으로 채를 썰는 동안 칼도 고되었을 것이다  
무른 칼은 더디고 무디어진 자신을 탓하기도 했을 것이다  
잠시 칼을 위한, 너를 위한 묵념을 하고  
정신을 차리면 시간은 잘도 끊어 올랐다

꾸역꾸역 주워 넣은 툇배기를 마주앉아  
우리가 나눠 먹은 것은 무엇이였을까?

음식이긴 했을까

나는 나를 먹고 너는  
너를 먹은 건 아닐까

익숙하지 않은 부엌에 서서 아침을 맞는다  
평생 끝까지 못 찾을 재료가 있을 것이고  
그것은 끝내 나의 요리가 될 순 없을 것이다

그래도 너의 맛을,  
상상해 본다  
맛있을 수도 있었을 한 끼를

우연히 검색하다 발견한 <아모르시티>의 모집공고.

마감일을 하루 앞두고 ‘설마 되겠어?’ 하며 가볍게 신청했었다. 생각지도 않게 참여자로 선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섰다. 시를 읽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시를 쓰는 건 전혀 다른 카테고리니까.

8월 말, 떨리는 가슴으로 도착한 첫 모임은 예상치 못했던 전개였다. 이름 대신 닉네임을 정해, “ㅇㅇ시인님”이라고 부르는 점도, 스텝들의 배려심 넘치는 진행과 새로운 시 해석의 접근방식도 좋았다. 모임 전의 불안은 기우에 불과했다.

시에 대한 각자의 생각과 감상들로 채워지는 시간.

리더들은 우리의 어떤 말에도 연금술사처럼 다양한 해석과 상상력으로 이끌었다. ‘틀린’ 게 없고 ‘다름’만 있었다.

10주의 시간이 각각의 에피소드처럼 남았다.

개인적으로 나에게 심표와 위로가 필요한 시점에 만난 인연이었다.

다른 듯하면서도 비슷한 결을 가진 조원들을 만나 더 솔직해질 수 있었다. 지면을 빌어 함께한 봉숭아, 나무, 나나, 유심 시인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모임을 계획하고 준비하며 진행해 준 모든 스텝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조의 리더였던 보리 시인님께 ‘덕분입니다’라고 전하고 싶다. 마지막 소감은,

저를 시인이라 불러준 고마운 계절이었습니다.

그대들 덕분에 ‘안녕’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봉숭아

## 사랑의 돌부리



## 사랑의 뒤통수를 노려보다

오늘따라 사람들로 가득한 지하철엔 영역 싸움이 한참이다  
두 발 붙일 공간도 차지하지 못하고  
털을 바짝 세운 아기 고양이  
“또, 또.”  
내가 나무란다고 내가 세상을 사랑할 수는 없어.  
더 단호하게 털을 세우려는데  
너는 따뜻한 점퍼 안 세상에 자리를 내어준다  
오죽이나 따뜻했을 세상은  
지하철 문이 열리자 언제 그랬냐는 듯 기다려주지도 않고  
제 혼자 서둘러 내려버리고  
나는 그 뒤통수를 노려본다  
“그럼 그렇지. 후- 우,” 한숨이 채 끝나기 전  
먼저 내려 영역싸움이 없는 공간을 찾아내었다며 웃으며 손  
짓한다  
너, 뒤통수는 보이지 마라  
아니다 바라보기 위해 돌아선다면 나는 계속 노려보련다

## 사랑을 다하다

### 바라보다

나의 사랑은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한다  
내 시선을 알아차린다면, 내가 널 사랑하고 있음을 알아줄  
래?  
눈을 감은 순간에도 널 볼 수 있어  
어쩌면 더 자세히 볼 수 있지

오롯이 너를 알아가기 위해 모든 감각을 닫고 탐색을 시작  
하니까  
나의 육감을 내려놓고 마음에 귀 기울이는,  
나의 세계에는 물음표가 가득하다

### 따라하다

찰나의 순간 나는 항상 다음을 고민한다  
너를 사랑하는 나는 조급하지 않다  
네 미소를 보면 난 따라 웃고, 네 눈물이 닿으면 나도 따라  
울면 돼.  
너의 자취를 따라가는 순간. 나의 물음표가 멈추는 순간  
나는 사랑을 한다.



제게 시를 쓴다는 건 목적지를 잃은 경주마를 멈춰 세우는 일입니다. 그 의미를 잘 알면서도 먹고사는 게 뭐라고 일상에 치여 살다 보니 아주 잘 쓰인 시집을 바라보는 것조차 버거울 때가 많았습니다.

나의 마음을 돌아보게 해주는 것.

내 하루의 소중한 순간들을 자세히 바라보는 것.

내 마음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

저를 너무나 설레게 하는 이 모든 행위를 가능케 하는 것. 시를 쓰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에 치여서 내 삶을 가꾸지 못한 채 상처투성으로 하루하루 버티어 가던 저의 손목을 붙잡고는 스스로를 돌보아라 만져주어라 격려해주던 시간. 제게 아모르시티 프로그램은 돌부리였습니다. 멈추어 서게 해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10회차의 시간들에는 사랑과 격려가 꼭꼭 담겨있었습니다. 이 시간들을 준비하셨을 선생님들의 노고가 그려져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가능토록 지원해 준 서울시에도 큰 감사를 전합니다. 세금을 낼 때면 입이 삐죽 나왔습니다. 나라가 내게 뭘 해줬다고 이렇게 꼬박꼬박 돈을 가져가지? 프로그램을 마치니 나라는 청년을 이 나라가 응원해 주고 있구나. 나의 고군분투가 영 외롭지만은 않

구나.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약 석 달 간의 시간 동안 함께한 1조 시인님들이 벌써 그림습니다. 촌스러운 나와는 달리 어쩔 그렇게들 세련되게 시를 써 내려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까? 처음에는 자꾸만 제가 부끄러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인님들을 따라 하고 싶어졌습니다. 제게 있어 따라 한다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이 프로그램과 함께한 시인님들 그리고 잘 이끌어주신 선생님들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김민지

## 2024년 팔구시월



### 몇 가지의 다정함

양팔을 벌리고 안녕  
미소 속에서 고마워요 웃는 얼굴  
비밀스럽게 나지막한 괜찮아요  
상냥하게 간질간질한 손짓과  
기쁨으로부터 달콤하게 콧노래 한 구절  
영원히 평안으로부터 반짝거리는 하늘

오늘 받은 커다란 선물  
내가 받은 선물이겠습니다.



어제 오후 네 시, 이곳에는 바람이 불었다  
바람을 마주하고 맑은 초가을의 냄새가  
어찌면 계속 될 거라고 믿었다

오늘 저녁, 이곳에는 바람이 분다  
바람에 실려 온 높고 붉은 구름의 냄새가 기억나서  
무심코 머리를 만졌다

내일 새벽, 이곳에는 바람이 스친다  
바람과 함께 온 축고 축축한 냄새가 스쳐  
다시 몸을 웅크리고 눕는다

전부터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었지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실천에 옮기지 못하였다. 그러다 우연히 ‘아모르시티’에 참여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시를 쓴다는 것이 글보다 더 간략하게 생각을 표현하기에 쉬울 것 같다고 생각하였으나 프로그램에 참여할수록 시를 통해서 나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렵고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하지만 3달 동안 10주의 프로젝트 동안 다양한 시인님을 만나고 다양한 형태와 유형과 느낌의 사랑을 마주할 수 있어서 좋았다.

사랑이라는 주제가 때로는 무겁게도 가볍게도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밝고 행복했다가 조금은 어두워지기도 했는데 이러한 경험을 시인분들과 스스럼없이 터놓을 수 있어서 공감과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 또 가장 나의 솔직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다.

3달 동안 함께한 같은 조의 시인분들과 보리 시인님, 또 아모르시티를 이끌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고 3달의 시간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가끔은 시인으로 살아보려고 한다.

미지

찾고 있다고  
들었어요



균형을 잡다

내가 오늘 삼킨 것을  
네가 오늘 삼킨 것을

내가 오늘 밟고 섰던 땅을  
네가 오늘 밟고 섰던 땅을

내가 견뎌야 했던 것들을  
네가 견뎌야 했던 것들을

내게 남은 것을  
네게 남은 것을

모빌에 달아보기 흔들기  
균형을 맞추거나  
영영 기울어 버리는 것을 지켜보기

아름다워하거나 슬퍼하기

아름다움이 뭘지 고민하기  
슬픔이 뭘지 고민하기  
고민을 모빌에 달아보기  
지켜보기

끝을 모르고 길어지기

## 무기력한 여성의 분비물을 활용한 블루치즈 만들기 (세상을 부패시키는 계획)

우선 혼자 사는 무기력한 여자 인간을 찾아야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 소식이 뜸한 그 사람을 의심하세요

벗어 놓은 팬티가 날마다 썩어 썩어 쌓이는데도 그저 두고 보  
면서

가만히 좌절만 깊어지는 이가 필요합니다

여름의 은둔자가 제격인데요, 팬티에 늘어 붙은 분비물은  
허영고 끈적하여 더운 날의 빨래통에서 금세  
시큼한 냄새를 풍기는 푸른 곰팡이를 피워냅니다  
이것은 부적절감에 몸부림치는 이의 정수 같은 것!  
여자는 간혹 어떤 결심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빨래통을 열  
것인데

이내 득실한 곰팡이와 마주하고는 눈물을 툭툭 흘릴 것입니다  
이때 젖어든 팬티는 질 좋은 소금기를 머금고 있지요

이제 여자의 팬티를 모두 거둬 곰팡이를 채취하고

사람 체온 정도로 증탕한 우유와 크림에  
곰팡이, 응고제를 넣어 치즈를 완성합니다  
곰팡이는 치즈 사이로 시퍼런 혈관을 뻗치고  
거기를 채우는 건 멈춰버린 이의 몸에서 유일하게 흐르는  
법을 알았던 슬픔

자, 이제 완성된 치즈의 맛을 보세요  
사람 마비시키는 풍미입니다  
훤아보세요, 들여다보세요  
곰팡이의 색깔을 말해보세요, 이 사람을 이해해 보세요

승고한 곰팡이는 포자를 퍼뜨리고 퍼뜨리고  
당신이 시치미를 떼도 곰팡이의 시대는 온다

곰팡이가 원하는 것은 변질  
곰팡이가 원하는 것은 증식

냄새가 지독할수록 고급으로 친답니다  
타인의 좌절을 음미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이 자꾸만 더워지고  
침범과 소외의 놀이를 지속하고  
우리를 좌절시키는 이유로  
위의 치즈 만들기 방식은 권장됩니다

당신에게만 평화로운 저녁에 어울리는  
블루치즈 어떠신가요?



그동안 혼자 시를 읽으면서 왜 어떤 문장들은 계속 마음에 남는지 내 언어로 설명하기 어려운 순간, 입안에서 자꾸 굴러보면서도 시인이 어떤 생각을 담아서 쓴 것인지는 도통 모르겠는 순간, 애초에 어떻게 시를 쓸 수 있는 걸까, 나도 시를 쓸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아모르시티를 통해서 시인의 이름을 얻고 매주 시를 쓰고 서로의 시에 대한 감상을 나누면서 시에 대한 거리감이 조금은 좁혀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인 앞에서 시를 쓰고 곧장 드러내는 것이 두렵고 부담으로 느껴졌던 순간도 있었지만 온 마음을 다해 서로의 시를 느껴보려는 그 골똥하고 다정한 눈빛들에 감동하고 어느덧 그 눈빛과 목소리에 익숙해질 무렵에는 그저 오늘은 또 어떤 기쁨을 맛보고 올 수 있을까? 하는 기대만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이토록 포용적이고 안전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경험했던 적이 있던가 싶어 울컥하기도 했고요!

같은 조였던 과자, 유예, 종이, 지구본 시인님과 이끌어 주셨던 담요, 호떡 시인님, 그리고 그동안 아모르시티를 함께하며 귀한 이야기 나눠 주신 모든 참여자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를 스치고 가는 푼크툼을 붙잡아서 계속 쓸 수

있기를 바라요! 모두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유심

## 떨어진 사랑의 공무니



## 젯빛의 집

환기는 환기가 아니었으므로  
문은 소리하지 않았거나  
소리를 속으로만 삼켰나 보다

비혼이나 모태솔로와 같은  
1인 가구는 2인일까 0인일까  
아니면 0으로 수렴하는 미지수일까

침묵을 깨는 것은 팔아먹을, 혹은  
팔아먹을 수 있는 것들뿐인  
저녁 틈새로도 바람은 분다

퇴근길의 점쟁이가 말한 오늘  
불의 냄새가 오지 않은 저녁이나  
404라는 공터에 나는 있었다

404 not found의 색은

젓빛, 그 이전에는 황소의 색이라는 생각에  
나는 붉게 펄럭이다 404와 동화한다

지도에는 회색 동그라미와 느낌표만이 있길 원하면서

## 방랑하는 물

물결이 나이트처럼 동그래지고  
투명해지는 수심이  
간신히 검은 목소리가 되어  
돌고래는 무늬를 벗고 간다

희미해진 이빨이 목청껏  
안녕, 하고 울면  
숫구쳐오를 만큼 높은 곳에  
상냥하게 떼어낸 곡선을  
바라본 순간부터 만들었던  
허물은 알



처음에는 이전의 감각이 남아있는지를 알고자 참여했던 것 같다. 무엇이라도 쓰지 않으면 가슴 한구석 어딘가에서 끓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더더욱. 그곳에서 마음껏 토하고 싶었다. 사랑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그것들을 다 토한 뒤라면,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었을 것 같은 기분이었다. 당시에는 존재해도 괜찮은지에 대한 확신조차 지니고 있지 않았으니 말이다.

그렇다고 제시간에 나오거나 하는 일이 쉽거나 하지는 않았다. 9월 말까지는 직업교육을 이수해야 했으니까. 그렇다고 그 활동을 열심히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지만 책방에 도착하면 항상 지쳐있었다. 성과는 안 나오지만 붙들기는 했으니까. 그렇게라도 안 하면 상술한 확신조차 흩어질 것 같았기에 조금 더 오래 잡으려고 했다. 적어도 이번 프로그램의 활동들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시를 쓰곤 했지만, 시집을 읽는 편은 아니었다. 깃해야 교과서에 실린 시들이나 기존의 시 창작 프로그램서 접한 시들 정도일까? 그럼에도 시는 조금이나마 나와 의아했다. 가끔 작성한 시들을 보면 시들시들하다는 느낌도 들었지만, 그렇게까지 밉지는 않았다. 일단은 하나의 이야기로 나와는 주었으니까. 쓴 뒤에 다시 한번 원고를 보면 뭐

라도 나올 수는 있다는 걸 생각하면 오히려 고맙다고 해야 할까?

팔레스타인의 시인 마흐무드 다르위시는 그의 시 「배회중」에서 ‘어슴푸레한 문자들이 나에게 말했다./씨라, 그래야 존재할 것이다./읽어라, 그래야 발견할 것이다.’라고 했다. 어쩌면 이때의 과정들 모두가 그렇지 않았을까. 자기만의 언어로 시의 한 구절을 새로 창조하는 과정부터, 세 개의 시에 있는 단어들로 또 다른 시를 만드는 과정이나 시를 입체적인 방식으로 배치하는 과정 등등. 수능 공부 때 종종 봤었으나 그때와는 또 다르게 다가온 건 이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추신: 누군가는 이들이 단순히 하나의 경험이고, 돈도 안 되는 작업이라 생각할지도 모른다.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와 책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공존하는 국가이기에 가능한 일일까? 그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한 가지 묻고 싶은 건 있다. 만약 그 경험을 토대로 돈을 만드는 무엇인가를 만든다면, 그때도 그 경험을 그렇게 취급할 생각인지. 만약 글을 쓰려는 사람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이가 있다면,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다면 소가 경을 이해할 때까지 곁에서 경을 읽는 게 나올지도 모르겠다.

과자

액자



행운

어떤 나무는 함부로 베이고 그대로 버려진다  
모기는 정말로 조금도 유익하지 않다고 한다  
핵폐기물은 땅에 묻힌 채 천 년을 기다려도 여전히 쓰레기  
이다

(위의 말들은 모두 과학적이고 자연스러운 사실이다)

모든 종류의 음악 플레이어에는 정지 버튼이 있는 것처럼  
고장난 텔레비전은  
굳이 전원을 켤 필요가 없는 것처럼

나는 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지?  
에 대한 대답은 위와 같이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발견되고  
있다.

“처음부터 재생하지 않았다면 정지 버튼을 누를 필요도 없  
는 것”

바라옵건대

## 좋아해

내가 흉내낼 수 없는 게 좋아지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다리가 여덟 개인 거미  
별보다 더 가까이에 있는 인공위성  
바라만 봐도 나를 돌로 만드는 당신  
어떻게 해야 하지?  
잘 몰랐었지만 이제는

포크로 표면을 긁으면  
드르륵 드르륵  
듣기 좋은 소리가 나는 애플파이  
꼭 따뜻한 커피랑 먹고

인공위성  
내 휴대폰 바탕화면으로 해

거미

나무가 쓰러져 석탄이 되기까지 3만 년이 걸리고  
공룡이 누워 석유가 되기까지 1만 년이 걸리는데  
위와 같은 믿음을 배신하기까지 고작 몇십 년이 걸리는 행  
운을 빌고 싶다

부디  
모두가 싫어하는 모기처럼  
변하지 않는 쓰레기처럼  
아무것도 되지 못하는 나무처럼  
내가 조금 자연스러워지길



내 방에 두세 마리쯤 있는 게 자연스러워  
(그들은 모기를 잡아줄 거야)

그리고 나를 돌로 만드는 당신은  
집에 있는 거울을 갖고 가기로 해

거울을 보고선  
반대로 돌이 되어버린 당신  
미안해  
얼음뎡 하고 뒤도 안 보고 도망갈게

그런데 거미는  
자기 말고 다른 거미의 집에 놀러갈 수 없대  
그랬다간 거미줄에 걸리고 만다나 뭐라나  
그래서 내가 부지런히 거미들의 소식을 전해주기로 했어요  
인공위성처럼  
휴대폰처럼

사랑이라는 주제를 모르고 신청했었습니다. 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고, 뭔가 제가 다룰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사랑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을 때 잘 답변하지 못해서 조금 민망했었습니다. 사실은... 사실은 집에만 계속 혼자 있기 싫어서, 다른 사람들과 여러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신청했었습니다. 주제와 다르지요. 그렇기에 다른 분들이 듣기에는 너무 엉뚱한 이야기만 하지 않았을까, 같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분들이 잘 들어주시고, 제가 쓴 시도 좋아해 주셔서 많이 기뻐했습니다. (정말 많아요) 또 처음 보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쓰신 시를 나눠 읽으며 친해져가는 감각이 좋았습니다. 이분은 무엇을 좋아하는구나, 이분에게는 이것이 매우 소중한구나, 이분은 참 유쾌한 분이구나, 이분은 이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 있구나... 신기했고 놀랍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저 또한 다른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주셨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정말 많이 많이 따뜻해집니다. 10주 동안의 이런 시간을 얻은 것이 많이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도 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많이 즐거웠고 정말 많이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04

05

06

화재단 '2024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공모 선정

2024/09/10

아모르시키티 4회

사랑의 뒤통수를 만지다

인문예술놀이터 다:시

서울문화재단 '2024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공모 선정  
인문예술놀이터 다:시  
아모르시키티  
2024.09.24, 픽스팩스, 저녁 7시

사랑은 묻는다

서울문화재단 '2024 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공모 선정

아모르 시

사랑하며 미워하다

인문예술놀이터 다:시

24.10.01 (화) / 서울

07

서울문화재단 '2024 서울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공모 선정  
아모르시詩티 7회

# 사랑을 짓다

인문예술놀이터 다시  
2024. 10. 8.

피스복스 7:00pm



목  
나  
공

나

아름다운 나  
아름다운 나

하늘이다  
하늘이다.

아름다운 나  
아름다운 나

이대로

?

싶다

아름다운 나,  
아름다운 나,

이대로  
배다닌다.

이대로

·  
싶다

나는 아름답게 늙는다

노년목

아름다운 나

아름다운 나

나무

## 환절기

무심코	달력을	본다	당신이	있으면	좋겠다	그곳에
오늘	저녁	이곳에는	바람이	본다	바람에	심리온
만리밖	꽃향기가	거역나	매미가	울음을	그친지도	몇 주가
지났다	박다문	골목	이어도	종았다	사실	일부러
길을	잃은	날도	있었다	울음을	그친지	

## 환절기

무심코	달력을	본다	당신이	있으면	좋겠다	그곳에
						알아되지
않았다	눈물로	반쯤이진	용담이의	수심은	몇 미터	않겨
당신이	무사하기를	바랐다	말하지	없는	노래를	푸르코
싶었다	비료를	방황하여	물조리는	八도가	되었다	다시 아침
그곳에는	비람이	본다	바람에	심리온	만리밖	꽃향기가
거역나서	무심코	길을	멈춘다			



미래

아직 간질간질 간질간질 아직 미동 미동 미동 미동 미동

미래 미래

미래 미래 미래

미래

미래 미래

르

ㄱ

ㄷ

도토리묵



잠보



당신에게

불안

불안

당신에게

몇 세기

불안

불안

만남

유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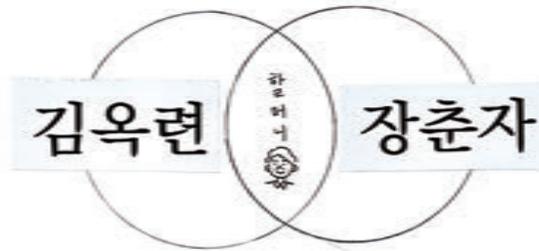
불안

사랑을

生

아버지 엄마

엄마의 엄마



나

‘餘生’

EASTER  
호수이름

하

Easter



괜

찮

# 사랑의 얼굴

수평선처럼 열렬히 왼쪽 주머니에 넣고

백  
백  
백  
백  
백  
다가간다  
다가간다

고아워요

고아워요

분홍분 군을 ㄷ  
분홍분 군을 ㄷ

그 어제의 영원을

그 어제의 영원을

아직?

아직?

## 아직?

이거지 못하겠어요  
죽지도 않아

아

#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요

지구본





비참하고 복잡해서 익숙하지 않은 미디고 부디어진 마음이 여기까지까지 손을 놓쳤을 때, 어쩔 수 없는 그때 그것은

자신을 잃어버렸나 보다  
탓하기도 했을 것이다  
고되었을 것이다  
평생 끝까지 못 찾을

나는 너를 너는 나를 우리를

상상해 본다

같은 나의 것이  
될 순 있음



오늘 이곳에는

봉숭아

하늘 하늘 카늘  
 바람 바람  
 바람  
 냄새 냄새  
 냄새  
 실려 온  
 따뜻 따뜻  
 따뜻 따뜻 따뜻 따뜻  
 따뜻

봉숭아



## 몇 가지의 다정함

오늘 받은 커다란 선물  
오늘 받은 커다란 선물  
내가 받은 선물입니다  
내가 받은 선물입니다

양팔을 벌리고 안녕  
나지막한 관참아요  
간질간질한 손짓과  
달콤하게 웃는 콧노래  
영원히 평안으로부터  
반짝거리는 하늘 속에

# 괜찮아요, 나는 작별 공장 /미지



핸드폰  
 화  
 면  
 미소  
 채  
 공  
 달  
 네  
 컷  
 공  
 중  
 채  
 치  
 초  
 초  
 초



<행운 에 대한>

조금도 유익하지 않 어떤 나무는 함부로 데이고 쓰러져

내가 되기까지

조금 질리는데

여전히 쓰레기이다

바라움전대

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지

모기는 정말로

모두가 싫어하는 ?

정지 버튼을 누를 필요도 없 것처럼

대답은 위와 같이

아무것도 되지 못하는 나무처럼

모기처럼

쓰레기처럼

과학적이고

자연스러워지길

<자연스러운 사실>

고장 난 텔레비전은 땅에 묻힌 채 천 년을 기다려도 그대로 버려진다

정지 버튼이 있는 핵폐기물은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발견되고 있다.

"처음부터 배신하기까지 3만 년이 걸리는 것"

공룡

나무

행운

차차

부디

모든 종류의 음악 플레이어

재생하지 않았다면

고작 몇십 년이

1만 년이

굳이 전원을 켜 필요가 없는

변하지 않는

위와 같은 믿음들

나는 빌고 싶다



행운

과자

어떤 나무는 함부로 베이고 그대로 버려진다  
모기는 정말로 조금도 유익하지 **않다고 한다**  
핵폐기물은 땅에 묻힌 채 천 년을 기다려도 여전히 쓰레기이다  
**(위의 말들은 모두 과학적이고 자연스러운 사실이다)**

모든 종류의 음악 플레이어에는 정지 버튼이 있는 것처럼  
고장 난 텔레비전은  
굳이 전원을 켤 필요가 없는 것처럼

나는 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지?  
에 대한 대답은 위와 같이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발견되고 있다.  
"처음부터 재생하지 않았다면 정지 버튼을 누를 필요도 없는 것"

바라옵건대

나무가 쓰러져 **석탄이 되기까지 3만 년이 걸리고**  
공룡이 **누워 석유가 되기까지 1만 년이 걸리는데**  
위와 같은 믿음을 배신하기까지 고작 몇십 년이 걸리는 행운을 받고 싶다

부디

모두가 싫어하는 모기처럼  
변하지 않는 쓰레기처럼  
아무것도 되지 못하는 나무처럼  
내가 조금 자연스러워지길

과자2





08

- |     |     |      |
|-----|-----|------|
| 벽하다 | 등글다 | 신호하다 |
|     | 채우다 |      |
- |      |    |  |
|------|----|--|
| 따라하다 | 돈다 |  |
|------|----|--|
- |  |      |  |
|--|------|--|
|  | 인정하다 |  |
|--|------|--|
- |     |      |      |
|-----|------|------|
| 아프다 | 걷는다  | 이름하다 |
|     | 바라보다 | 쌍다   |
|     |      | 나누다  |
- |       |      |  |
|-------|------|--|
| 주춤거리다 | 너무하다 |  |
|-------|------|--|
- |     |     |    |
|-----|-----|----|
| 물들다 | 뒹는다 | 하다 |
|-----|-----|----|
- |  |     |  |
|--|-----|--|
|  | 펴보다 |  |
|--|-----|--|
- |      |  |  |
|------|--|--|
| 나행하다 |  |  |
|------|--|--|
- |      |      |       |
|------|------|-------|
| 감염된다 | 발명하다 | 더듬거린다 |
|------|------|-------|
- |     |      |     |
|-----|------|-----|
| 관찰다 | 참방하다 | 스미다 |
|-----|------|-----|
- |  |      |  |
|--|------|--|
|  | 걸어가다 |  |
|--|------|--|
- |          |  |      |
|----------|--|------|
| 가르락가르락하다 |  | 생각한다 |
|----------|--|------|
- |  |      |  |
|--|------|--|
|  | 하루하다 |  |
|--|------|--|
- |        |  |  |
|--------|--|--|
| 균형을 잡다 |  |  |
|--------|--|--|



거인들의 키링에 나의 시간을 달았다

그러서 내가 부끄럽히 도망갈게

삶은 꼭 따뜻한 커피랑 먹고 알아차리는 것

내 방에 두 세 마리쯤 있는 계란만 텅그러니 남기는 일  
거울에 김이 서려나

기울어버리는 것을 지켜보기

별보다 더 가까이 있는 인공위성 모빌에 달아보기

아름다워하거나 슬퍼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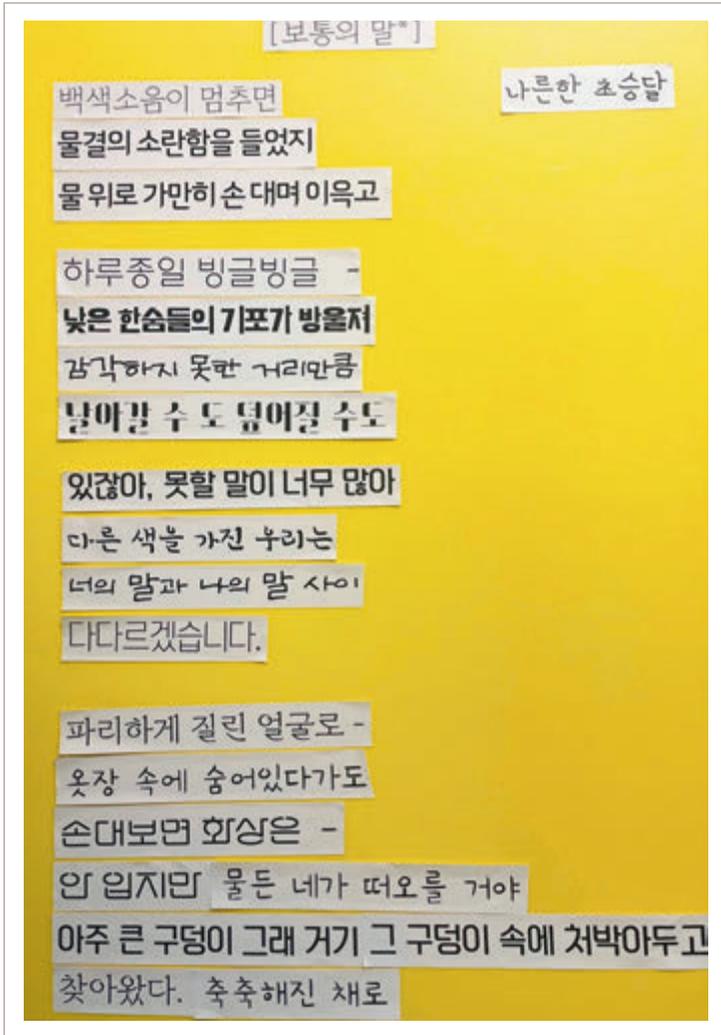
내가 흉내낼 수 없는 게 좋아지면

영영 흔들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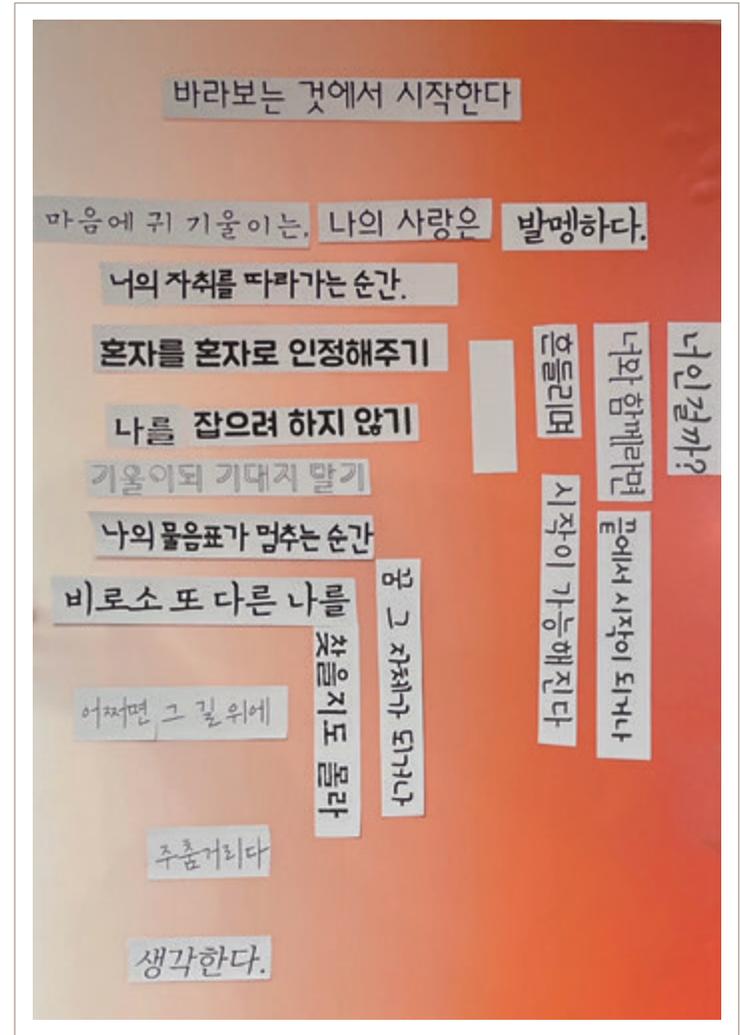
입술이 얼얼하다 못해 미안해

균형을 맞추는 것을 잘 몰랐었지만 이제는  
지나가는 청개구리

# 자구본  
# 종이  
# 과자  
# 미지  
# 유예



# Easter  
# 잠보  
# 노을  
# 메이  
# 도토리묵



# 유심  
# 나무  
# 나나  
# 뽕송아  
# 오늘도안녕



10

사실 개인적으로 올여름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갈피를 잡기가 어려웠어요. 어떤 울분 속에 잠겨 있느라 침대 밖으로 몸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는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유도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어요. 우두커니 혼자 밤을 지새우는 날들이 늘어갔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아모르시티에만 가면 다 괜찮아졌습니다. 여러분들과 눈을 맞추고 웃고 서로의 시를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이 무엇보다도 저를 단단히 지탱해주었습니다. 침묵의 시간조차 무섭지 않고 소중한 겁니다. 피스북스 1층에서 한 분 한 분 인사를 나누는 순간부터, 제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절로 반가워지고, 애쓰지 않아도 웃음이 나왔어요.

각자의 속도와 방향대로, 각자의 방식대로, 마음을 모아주시고 그 마음을 타인에게 전해주려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큰 위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강사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앞에 섰지만, 여러분께 드린 것보다는 받은 게 훨씬, 정말 훨씬 많아요.

최근 저는 아름다움이라는 단어에 관해 골똘해지는 시간을 종종 갖고 있습니다. 생각할수록 아름다움은 예쁘거나 도덕적이거나 모두

가 동의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이에서 저는 어떤 팔딱거림을 목격한 것 같습니다. 수많은 명사와 정의 이전에, 우리 사이를 이미 흐르고 있던 움직임과 생기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서 목격했던 그것을 감히 아름다움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글자가 되어 흘러나오는 이 마음을, 감히 사랑이라고 말해도 될까요? 여러분이 모르시티에서 발명하신 그 사랑이요.





렝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은 다시 발명되어야 한다.”  
어쩐지 이 ‘다시’에는 영원성이 깃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 세 번  
이 아니라 무한히 다시 발명되어야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사랑이 무엇이길래 발명가도 과학자도 아닌 우리에게 계속해서  
발명과 재발명을 촉구하는 것일까요?

영원히 사랑이 발명되는 세계에서는 모두가 조금 덜 외롭지 않을까  
생각한 적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시인님들을 아모르시詩티에 초대하  
기도 했는데요. 사실 저는 여전히 사랑을 잘 모르겠다는 고백을 해보  
니다. 사랑이 아무 힘도 가지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도 있고요,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빠지는 날도 있습니다. 다  
만 시인님들과 함께 읽고 쓰면서 사랑을 살갓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함께 질문하고 또 함께 답을 구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언어들  
저를, 또 우리를 감싸 안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10  
주간 시를 사이에 두고 ‘나’를 만나고 서로를 만나기 위해 애쓰고 골  
몰한 시인님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주저하면서, 조금 부끄러워하  
면서, 사랑과 시에 대해 말하기를 멈추지 않는 장면을, 저는 아마 아주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작은 고백이 다른 작은 고백을 불러일

으키는 대화 안에서 저는 덜 외롭고 덜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시인  
님들께는 10주간의 여정이 어떤 의미로 남았는지요.

사랑을 발명할 때 시가 쓰이는 것인지, 시가 쓰일 때 사랑이 발명되  
는 것인지 그 순서를 알기는 어렵지만, 사랑의 장소와 시의 장소가 겹  
쳐지는 순간이 있다고, 다소 확신을 실어 이야기해 봅니다. 시인님들  
덕분에 가지게 된 확신이에요. 시와 사랑에 몰두하는 뒷모습들을 마  
음 깊이 담아두려고 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시인님들께 감사드려  
요. 읽고 쓰는 자리에서 또 반갑게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보리 드림



사랑은 오래간 저를 깨워둔 주제였습니다. 저는 사랑의 외부자로, 내부를 영원히 기웃거리는 마음으로 긴 시간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기웃거리는 마음은 시를 쓰기에 적합한 마음이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모르시티에 올 때마다 은밀하게 그런 마음으로 기웃거렸어요. 당당하게 사랑의 내부로 들어오라는 초대장 대신에 같이 손잡고 고민하는 작당모의를 하려는 마음으로요.

삶은 사람을 밀쳐낼까 끌어당길까 자주 고민합니다. 어느 기쁜 날에는 삶이 나를 너무 강하게 끌어 안아서 숨이 막힐 것 같고, 더 자주 슬픈 날에는 삶이 나를 저 먼데까지 혹 밀쳐서 돌아오지 못할 것만 같아요. 그럴 때 어떤 의미로든 사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매 순간 새로이 발명해낸 사랑의 동사로 삶을 하나 둘 엮어서 버티게 끌어당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아모르시티에서 함께한 기억들이 한동안 저에게 사랑의 동사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동사를 발명하기 전까지, 혹은 새로운 동사를 발명해나가면서도 사랑은 한동안 아모르시티-하다로 자리할 것 같아요. 좁은 책상을 구겨넣은 방에서 시를 쓰고 읽고 나눴던 시간들처럼 옹기종기 모여서요.

어떤 방식으로든 또 만나요. 그때까지 시인님들이 건강하고 잘 주무시고 잘 챙겨드릴 수 있는 날들을 보내기를 바라고 있을게요. 무탈히 살다 어느 날 또 반갑게 마주합시다. 멀리멀리 밀쳐진 삶들을 꼭꼭 손에 쥐고 다시 당기며 인사드려요. 안녕! 모르시티. 안녕! 나의 시인님들.

2024. 11. 10. 일요일 새벽, 이음 드림.



서울문화재단의 '2024 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교육예술가(단체)가 일상에서 고유의 작업을 통해 시민과 만나는 과정, 시민이 예술 창작의 주체가 되는 경험, 지역이 교육예술가(단체)의 활동과 만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예술교육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다양한 예술교육 활동 주체를 지원합니다.

(아카이브 페이지 : [moda.or.kr](http://moda.or.kr))

서울문화재단 '2024 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공모 선정 프로그램  
| 아모르시詩티 | 아카이빙북

---

1판 1쇄 펴낸날 2024년 11월 19일

지은이 신혜연, 나무, 메이, 임한나, 도토리묵, 강세진, 김수진Easter, 김나운, 노을,  
오늘도안녕, 봉송아, 김민지, 미지, 유심, 과자

펴낸이 인문예술놀이터 다:시

편집디자인 홍선주

삽화 등글개(남궁희)

펴낸곳 인문예술놀이터 다:시

<아모르시詩티>와 함께 한 사람들

주최 인문예술놀이터 다:시

주관 서울문화재단 • **SEOUL MY SOUL**

진행 담요(김경희), 숨(차하나), 등글개(남궁희)

호떡(성아라), 보리(최지원), 이응(○혜정)

- 
- 이 책의 판권은 지은이와 인문예술놀이터 다:시에 있습니다.
  -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양측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